

# “윤준협 물건이네”...TV조선 미스터트롯2가 발견한 ‘원석’

최종 11위...‘트롯 카사노바’ 애칭  
‘2018 슈퍼모델 선발대회’ 우승자

윤준협(23)은 TV조선 오디션 ‘미스터트롯 2’에서 가장 아쉽게 떨어진 참가자 중 한 명이다. 방송 초반부터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주목 받았다. 심사위원 진성(63)이 “저 친구는 진짜 물건”이라고 할 정도로 스타성이 뛰어났다. “오랜 기간 활동한 대선배님이 극찬해 감동 받았다”고 귀띔했다. 최종 11위로 톱10이 치르는 준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탈락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결과”라며 “만족스러우면서도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 ‘내 사이즈는 3차까지’라고 생각했다. 1차 오디션 준비할 때만 해도 ‘3차까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고 마음 먹었지만, 올라갈수록 욕심이 생겼다. ‘카사노바’ 무대가 방송된 후 ‘3차에서 떨어지긴 아깝다. 더 가야겠다’ 싶었고, 나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솔직히 11위도 엄청 잘한 거지만 아쉽긴 하다. 딱 한 등수만 올라서 10위를 했으면 준결승전 무대를 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모습을 못 보여줘서 아쉽지만, 이겨내려고 했다.”

윤준협은 미스터트롯2가 발견한 원석이다. 고등학교 시절인 201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경쟁률 1600대1을 뚫고 우승했고, 이후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들어갔다. 2021년 MBC TV 오디션 ‘극해테러 야생돌’ 출연 후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고, 미스터트롯2까지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했다”면서 “모델 일 하면서도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처음에 미스터트롯2 지원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스엠)에서 엄청 걱정했는데, 내 길을 찾는 것 같다”며 좋아라했다.

예심부터 남다른 끼를 발산했다. 현인

(1919~2002)의 ‘배사메무쵸’를 불러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나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한 명의 참가자로 끝날 것 같았다. 나만 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다. 엄청 몰입해 배사메무쵸를 불렀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제작진이 엄청 웃었고, ‘재 뭐야?’라며 놀랐다”고 귀띔했다.

윤준협은 ‘트롯 카사노바’로 불리고 있다. 마스터 오디션에서 심사위원 장윤정(43)의 ‘카사노바’를 불러 많은 대중에게 각인됐다. 요즘 사인할 때 “꼭 ‘트롯 카사노바’라고 쓴다”며 웃었다. 미스터트롯2 출연 후 인기를 실감한다며 “본가인 고양시 일산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자취해서 가끔씩 가는데, 현수막이 너무 커서 범거지 모자를 꼭 눌러 쓰고 들어갔다”며 “팬카페가 생겨서 가장 기분이 좋다. ‘화제성이 정말 크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1~3위도 꼽았다. 카사노바와 은가은의 ‘티키타카’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순이다. “카사노바 무대를 가장 아낀다. 미스터트롯2를 하면서 캐릭터를 잡을 수 있었던 곡”이라며 “티키타카는 생각보다 보컬 부분이 많았다. 계속 퍼포먼스에 치중한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 보컬적인 요소를 조금이나마 더 보여줄 수 있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댄스학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다. 연극과라서 가끔 보컬 수업이 있긴 했다”며 “부모님 닮았냐고? 두분 다 춤, 노래에는 소질이 없다.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 미션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를 불러 그룹 ‘슈퍼주니어’ 성민(37)을 꺾고 3차에 진출했다. “사실 미스터트롯2 무대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다. 곡이 너무 어려웠다. 쉬는 구간이 한 박이 아니라 반박이라서 숨 쉴 곳이 없다. 데스매치라서 압박감도 심했고,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다. 퍼포먼스로 갈증을 선보였는데, 칼도 잘 안 구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갈증을 연습할 공간도 없었다. TV조선 스튜디오 중 넓은 곳이 있었는데 새벽에만 쓸 수 있었다. 새벽에 가서 칼 돌려보고, 정말 힘들었다. 2~3주 정도 준비하며 ‘준협아, 너가 선택한 길이야.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이겨내야 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미스터트롯2 왕관은 안성훈(34)에게 돌아갔다. 임영웅(32)에 이어 최종 우승했고, 상금 5억원을 받았다. 2위 박지현(28), 3위 진해성(33)이 차지했다. 4~7위는 나상도(38), 최수호(21), 진욱(30), 박성운(13)이다. 전국투어는 8~10위 송민준(27), 추혁진(31), 송도현(12)을 포함해 톱10만 참여할 예정이다. 윤준협은 “처음에는 내 무대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안성훈 형이 눈에 띄었다.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 충격이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싶었다. 형이 진(1위)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며 “형 무대를 라이브로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도 성훈 형처럼 노래를 부르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미스터트롯 시즌3가 나오면 또 지원하고 싶지 않을까. “색다른 걸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캐릭터를 다 소비했는데, 이 상태로 다음 시즌에 도전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보컬 실력을 많이 키워서 재도전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개월 가량 오디션에 임하며 힘든 점도 많았다며 “뚝뚝하게 연습하려고 했다. 무작정 몸이 익도록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더 정확하게 파



악했다. 연습 시간이 충분하면 무한정 반복하겠지만, 갈수록 준비할 게 많고 컨디션 난조도 왔다. 곡 레퍼런스가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무대를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콘셉트를 찾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갈라쇼 녹화까지 마쳤고, 난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길을 준비 중이다. 6~7월께 앨범을 낼 예정이다. 내가 쓴 곡을 들려주고 싶어서 기타 치는 친구와 작업 중이다. 내 색깔과 잘 어울리는 곡을 만들고 있고, 이중 잘 골라서 앨범을 내고 싶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안 좋아하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미스터트롯2 끝난 다음날부터 친구한테 연락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앨범 작업을 시작했다.”

윤준협은 노래, 춤 뿐만 아니라 운동 실력도 뛰어나다. 최근 공개한 넷플릭스 예능물 ‘피치콜: 100’에서도 활약했다. 1차전에서 보디빌더 김강민(32)에게 겨루었지만,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였다”며 만족했다. “실제로 참가자들 봤을 때 ‘아, 여기는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다”면서 “정말 힘이 센 사람을 골라 잘 싸우고 싶었다. 김강민 선수와 대결해 작렬히 전사했다”며 웃었다.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싶다는 트로트가수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가수과 모델은 다른 매력이다. 가수는 한 번의 무대를 위해 수십, 수백 시간을 연습하지 않느냐. 모델은 반대다. 처음에 모델을 시작했을 때 열정이 넘쳐서 멋있게 하려고 힘을 썼다. ‘준협아, 제발 힘 좀 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오히려 내추럴하게 가야 사진이 잘 나오니까. 물모델은 박호신 님이다. 자신만의 색깔이 확고하지 않느냐. 나도 트로트 장르에서 확고한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

## 김은숙 작가 “더글로리 파트3...명오가 부활시켜달라고”



### 넷플릭스코리아 유튜브 뒷이야기 전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극본을 쓴 김은숙 작가가 “만약 파트3를 쓰게 되면 명오가 자기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2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복수당한 자들의 비하인드 코멘터리’ 영상에 출연해 갖가지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작가는 “종파티를 할 때 파트3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오(김건우)가 파트3를 만들게 되면 꼭 자신을 부활시켜달라고 말해서 웃었다”고 했다. 배우 김건우가 연기한 캐릭터인 ‘손명오’는 가장 먼저 죽음을 맞는 인물이다. 극 중에선 장례식 장면도 나온다.

이 영상엔 김 작가와 함께 배우 박성훈·정성일·김희아·차주영·김건우, 연출을 맡은 안길호 감독이 출연한다. 다만 안 감독은 파트2 공개 직전에 불거진 학교 폭력 이슈로 대부분 분량이 편집됐다.

김 작가는 유난히 욕설 대사가 많았던 이번 작품을 두고 한 시청자가 쓴 댓글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김은숙 그동안 욕 쓰고 싶

어서 어떻게 참았냐는 댓글이 있더라”며 “정말 원 없이 욕 대사를 썼다. 더 놀라운 건 출연 배우들이 욕 연기를 너무 잘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더 글로리’에 앞서 만든 작품은 모두 로맨스물이다. 이 작품들은 지상파·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공개돼 대사에 욕설이 담길 수 없었다.

김 작가는 주인공 ‘문동은’과 동은의 엄마와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보면 우선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며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부딪히는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어른, 첫 번째 보호자에게 가해당하는 삶을 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행복한 이야기를 쓸 때와 달리 어두운 작품을 쓰니까 피폐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해피한 걸 쓸 때는 알지 못했다가 어두운 걸 쓰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경험을 했다. 나 역시도 보기에 괴로운 장면 등은 쓰는 게 괴로웠다”고 말했다.

## 가수 임재범, 5개월간 전국투어 여정 마무리

가수 임재범이 전국투어 콘서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성료했다.

임재범은 지난 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전국투어 콘서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끝으로 5개월간의 전국투어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비상’으로 오프닝을 연 임재범은 “오늘이 벌써 전국투어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다. 힘을 내서 걸을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이곳까지 오게 해 준 건 모두 여러분 덕”이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의 응원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임재범은 ‘추락’ ‘살아야지’ ‘나인’ ‘데스

페라도’ 등 자신의 대표곡들로 진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불꽃놀이’ ‘이 밤이 지나면’ ‘똥 캣’ 등의 곡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현장의 열기를 달궜다.

또한 ‘사랑’ ‘아버지 사진’ ‘내가 견뎌온 날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등 다수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변함없는 역량을 펼쳤다.

특히 인천 공연에서는 임재범의 대표곡 ‘고해’가 셋리스트로 추가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오랜만에 ‘고해’를 부르며 몽롱한 감동을 안긴 임재범은 “‘고해’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셨죠? 누구는 예전의 임재범 같지 않다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 먹은 대로, 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



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의 목소리를 듣게 돼 마지막까지도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제가 노래를 할 때마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은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늘 곁에 있어 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의 기도 드리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카이, 솔로 앨범 ‘로버’ 활동 성료



그룹 엑소 카이(KAI)가 지난 26일 스페셜

MC를 맡은 SBS ‘인기가요’ 무대를 끝으로 세 번째 미니앨범 ‘로버(Rover)’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카이는 지난 13일 새 솔로 앨범 ‘로버’로 1년 4개월 만에 컴백, 2주간 각종 음악방송과 라디오, 예능,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했다.

동명의 타이틀곡이자 활동곡 ‘로버’는 24일 KBS2TV ‘뮤직뱅크’와 25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 음악방송 2관왕을 기록했으며 앨범은 씨름 주간 차트 2관왕,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48개 지역 1위,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 중국 QQ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및 뮤직비디오 차트 글로벌-한국 부문 1위 등 호성적을 기록했다.

한편 ‘로버’는 앞선 카이의 솔로 타이틀곡, ‘음(Mmmh)’, ‘피치스(Peaches)’에 이은 세 번째다.

## 아바걸스, 다음달 ‘맘마미아’ 한국투어

영국의 4인조 밴드 ‘아바걸스(ABBAGIRLS)’가 한국을 찾는다.

27일 상그릴라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바걸스가 오는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천안을 시작으로 서울 및 제주 공연을 진행한다”며 “내한 기간 중 봄 지역축제 행사 현장도 함께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환경을 생각하는 맘마미아 콘서트 내한공연’을 주제로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내한 일정은 15일 천안 봉서홀, 20일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22~23일 제주관광대 컨벤션홀 순이다.

아바걸스는 그룹 아바의 현정 밴드로서, 노래 뿐 아니라 다양한 무대 요소를 그대로 재현한다. 이들은 1995년 영국에서 결성돼 전 세계 42개국 4500회 이상 투어를 마친 베테랑 밴드다.

이번 공연에서 아바걸스는 ‘아이 해브 어 드림’ ‘댄싱퀸’ ‘맘마미아’ ‘히니 히니’ 등 명곡을 비롯해 아바의 신곡 2곡도 함께 총 22곡을 준비했다. 여기에 도쿄로올브뮤직전문학교 출



신 싱어송라이터 박소윤도 특별게스트로 나선다.